



# 나눔이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의 아름다운 이야기"



# Contents



발행인 : 나눔이네 사람들

편집인 : 문미향, 이정화, 오상민

인쇄처 : 디자인점수함 TEL : 043) 855-2231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TEL : 043) 843-9912, 844-8150

FAX : 843-9911

03 신규직원 인사말

04 꿈과 희망이 있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06 사랑의 김치 담그기

07 사랑이 가득한 나눔의집[자원봉사 후기]

08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날

10 아들에게 바라는 기도

12 나눔의집 이모저모

- 우리 이렇게 지냈어요!!!

14 자원봉사 현황

15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19 후원안내 및 세입 · 세출

20 나눔의집 안내도 및 장애인생산품 소개

## 알림마당

최근 충주 시내에서 나눔의집을 사칭하며 물품(반찬, 껌, 떡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지역 업체(식당, 슈퍼 등)에 방문하여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며, 위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 후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나눔의집으로 연락주세요~

나눔의집 홈페이지

<http://www.cjhanum.or.kr>

# 신규 직원 인사

사회복지사 김 미 주



안녕하세요. 나눔의집 신규 사회복지사 김미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9년 차를 맞고 있는 새터민입니다. 북한에서는 사회복지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복지국가라는 말도 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에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꼭 사회복지사가 되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9년 차를 맞고 있지만, 나눔의집에 입사하여 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새롭게 접하고 있습니다. 나눔의집 업무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도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힘든 내색도 없이 항상 밝게 웃고 다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입주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제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행길은 말 그대로 처음 가는 길.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내느냐는 것은 본인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한 지 4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나눔의집 선생님들의 응원 덕분에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저의 혈육은 없지만, 앞으로 나눔의집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나눔의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꿈과 희망이 있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문화바우처 프로그램 진행]

사회재활교사 강 미 정

누구나 한 번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꿈과 희망이 있는 동화 속 판타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셨죠? 아~ 어딘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환상의 나라 모두의 로망~ 놀이동산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놀이동산이 있지만, 10월의 놀이동산은 어디~?  
네~ 바로 에버랜드입니다.

10월 푸른 하늘만큼 화창한 날~ 우리 나눔의집 입주인분들은 한껏 부푼 마음을 품고 에버랜드로 입성하였습니다. 입장부터 화려한 장식에 놀라고 음악에 놀라고~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화보가 되는 우리의 날이었습니다.

회전목마도 타 보고, 신나게 물을 가르고 내려오는 짜릿함도 맛보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즐거움도 느껴보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눔의집 입주인분들을 다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할리윈 축제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비록 놀이기구를 타지 못한 분들에게도 눈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주인분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뒤에서 물심양면 휠체어를 밀어주며 입주인과 함께 무서움을 극복해준 이가 있었죠~ 바로 만능 재주꾼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 넓은 에버랜드를 휠체어로 밀어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리며 힘들기도 하였지만, 우리 선생님들 정말 밥 먹던 힘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열심히 입주인분들의 밤이 되어주었습니다.



놀이기구 공포증이 있다면… 그래도 타야죠~ 우리의 그대들이 원한다면… 기꺼이!!  
우리 입주인분들에게는 환상의 나라하자 꿈이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근력이 늘어나는 나라가 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웃을 수 있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우리 입주인분들의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그 미소가 있다면 그 어디든 기꺼이 한 몸이 되어서 동행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함께 웃으며 동행하는 나눔이네가 되길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성을 모아서 만든 김장 김치 ^^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영양지원팀 이혜영 팀장

11월 18일부터 ~ 20일까지 “나눔의집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쌀 쌀했지만, 감사하게도 김장 3일 동안 따스한 햇볕 아래서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글 수 있었습니다. 이번 김장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의 정성스러운 손길 하나하나가 김장하는 3일 동안 모여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완성 시켰습니다.

첫째 날에는 (주)보그워너충주 직원분들과 충주시 여성 기동대분들이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쪽파, 갓 등 부재료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전날 비가 온 뒤라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예상 보다 빨리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주)보그워너충주 직원분들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분들이 와주셔서 잘 절인 배추를 깨끗하게 씻은 후 배춧속에 들어갈 양념을 맛깔나게 버무려주셨답니다.

드디어 대망의 셋째 날~ 나눔사랑회, 햇살봉사회, 애플라이온스 봉사단체와 숭덕원 식구들이 총출동하여 맛있는 김치가 되길 바라며 잘 숙성된 양념을 알맞게 절인 배추에 슥슥~ 버물~ 버물~ 김치통에 차곡차곡!!^^

매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의집 김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자원봉사자 및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치!!

나눔의집 가족들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_^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 사랑이 가득한 나눔의집~^^

[자원봉사활동 후기]



충주상업고등학교 2학년 김가영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의집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따뜻한 봄부터 시작된 봉사가 어느덧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가는 겨울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나눔의집에 갔을 때는 입주자분들에게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지,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몰라서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니 봉사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봉사하는 동안 여태까지의 제 마음가짐들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 저의 모습도 한 층 성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였고, 그중 하루는 입주인분들과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나눔의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바깥에 나가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걸 함께 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고, 공연장에서 신나게 관람하시는 입주인분들을 보고 저까지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더 이런 기회가 잦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연장도 꽤 큰 규모였는데 장애인분들을 위한 자리에는 턱없이 한정적이었으며, 공연장까지 들어가는 경로 또한 너무 불편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눔의 집 입주인분들이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시는 것 말고도 밖으로 이동하실 때에 필수적인 리프트 차량도 많이 부식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눔의집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입주인분들의 더 나은 환경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함께 보듬어드릴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 또한 실내, 실외 이동이 더욱더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바뀌어 입주인분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입주인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나눔의 집에 계시는 입주인분들과 복지사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 “나눔의집 자원봉사자



2020년 12월 13일 나눔의집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감사의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바깥 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지만, 우리가 있었던 이곳은 후~끈, 후~끈 했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나눔의집 입주인 대표로 권오국씨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님께 2019년에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정성껏 작성한 감사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후원자 감사의 날”



2019년 한 해 동안 나눔의집과 함께한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을 모아~모아~ 영상으로 감상하는 시간도 갖고, 나눔의집 소리모아중창단이 준비한 멋진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집을 위해 헌신해주신 최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원장님께서 표창장을 시상해주셨습니다.



올 한해를 나눔으로 채워주셨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님의 배도 든든하게 채워드리고 감사의 날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해주신 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9년 충주 나눔의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_\_^♥

나눔이네 사람들 .. 09

# 아들에게 바라는 기도



나눔의집 부모회 대표  
경 대 수

지난 20여년전 전 지구가 밀리니엄의 시대 2000년의 개막의 축포를 쏘며 환호했던 때가 엊그제 같다. 그 짧거나 긴 시간을 지나 2020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가 오기 전에는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길인가를 잠깐이나마 정리하고자 했었지만, 직장과 내 일상의 여유를 만들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게 항상 뇌리에 남아 있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실린 이글이 남겨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던 차에 "나눔의집"으로부터 글을 쓰는 기회가 와서 남겨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겨났다. 갑자기 문득 생각나고 감명 있게 잠깐 스쳐 읽었던 2차대전의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라는 글이 생각나 그대로 먼저 옮겨본다고 해서 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저의 아이를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게 하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향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사랑으로 대할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신을 뿐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그의 아비 된 자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 맥아더 장군의 기도 글을 보면 부모로서 바라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간절하고 희망에 차 있다. 지금의 맥아더의 자손들은 얼마나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아비의 기도만큼 이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또한 그의 손주와 자손들도 미국 사회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실 나의 첫 자식이면서도 내 인생의 흔적을 간직해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그만큼의 기대는 실망보다는 오히려 희망의 끈이 있음을 기도하며 모든 치료와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대를 놓지 않고 나의 피붙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희망을 지난 34년이나 꿈꾸며 지내왔다.

낙심보다는 그가 성하지 않은 몸과 정신의 한 개체이지만 한 인생으로 끝까지 살다가 생이 다한다면 나의 기슴속에서 이 세상과 평안하게 이별하기를 기도할 때름이다. 나의 아들도 그려길 바랄 것이다. 가끔은 자식이 안타깝고 불쌍하여 울컥할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먼저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은 내 탓도 심히 해 보지만 하늘이 내린 생명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도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솔직한 심정인 것을 숨길 수가 없다.

이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며 나도 아비의 길에서 때론 소홀한 것이 있음을 되짚어 보고 반성한다. 간혹 나눔의집에 남겨진 나의 자식과 그보다 더한 운명을 가진 동료들을 찾아가 보면 나보다도 더한 현실에서 내가 감정을 추스르고 그들을 위한 일을 어떻게 해야만 나의 빛을 갚을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묻곤 한다. 그 많은 어려움을 가진 그들에게서 위안을 얻고 또 그들의 손발이 되어 밤낮으로 힘든 시간을 그들에게 정성으로 쏟으면서도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버팀목을 해주시고 더하여 밝은 표정으로 대하고 있는 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한 달에 한 번 찾아가 잠깐이나마 둘러보는 내 발길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제 이 나라의 복지 시스템도 많은 발전이 되어있고 심신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시각도 과거와는 다르게 좋아졌다. 정말 29년 전 내 자식을 위탁하고 돌아서던 때의 사회복지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아진 것은 모두 나와 같은 가족들에겐 정말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간혹 연고자가 없어 찾아오는 가족이 없이 복지시설 안에서만 있는 그들에게는 나눔의집에서 가장 살가운 분들이 가족 이상으로 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본다. 내가 놀란 것은 이곳 입주인들의 반 이상이 연고자가 없거나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에 세상의 각박함과 이기적 현실을 어떻게 밀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나눔의집에 있는 나의 가족들은 결코 외롭지 않다. 봄이 되면 봄꽃놀이로 여름이면 물놀이로 가을이면 단풍소풍으로 음악회로 기분을 발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과거처럼 외롭고 쓸쓸하지 않은 곳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들의 부모, 가족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품는 것이 미안하거나 죄송스럽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또한 가족분들의 방문도 힘이 된다는 것이고….

나의 경우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슴으로 하는 것이 내 아들과 내가 입은 은혜에 답하는 것이며, 나눔의집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새해엔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시길 기도드리며 일 년 아니 이후 긴 미래의 시간에도 언제나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한다. 부모회의 가족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힘이 되는 나눔의 집 가족의 일원으로 남기를 기원한다.

2020년 1월 14일 세현의 아버지 경대수 드림

## 이런 일 저런 일



- 일시: 10월 4일
- 장소: 원주 피노키오휴양림
- 내용: 나눔의집 술 캠프

- 일시: 10월 19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자원봉사활동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 일시: 10월 22일
- 장소: 충주 내포간들 체험마을
- 내용: 팝콘 만들기 및 사과 따기 체험

- 일시: 10월 22일~26일
- 장소: 베트남
- 내용: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해외문화팀방



- 일시: 10월 31일
- 장소: 강원도 해수욕장
- 내용: 나눔의집 1박 2일 바다여행

- 일시: 11월 2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2019년 나눔의집 제2차 정기 부모회

## 이런 일 저런 일



- 일시: 11월 11일
- 장소: 충주 롯데마트
- 내용: 능력개발 프로그램 “맛보고 장보고”

- 일시: 11월 22일
- 장소: 문성자연휴양림
- 내용: 나눔의집 숲 캠프



- 일시: 12월 2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2019년 나눔의집 하반기 사업평가



- 일시: 12월 9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인권지킴이단 4차 정기회의



- 일시: 12월 10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직원의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윤리강령, 긴급신고자의무 교육)



- 일시: 12월 3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2019년 나눔의집 종무식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 매월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나눔의집 이용인들과 시설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10/1  
~12/31

## 자원봉사현황



### • 마사지봉사

김인성, 이수덕, 이현수, 이해원, 이경선, 흥미경, 이봉순, 최승길, 이명실

### • 미용봉사(대한미용사회 충주시지부)

김상식(올레헤어스케치), 김연희(머리가꾸기), 김정기(곱디고운머리방), 김지성(김지성미용실),  
김하은(땀땀미용실), 박미자(엠제이헤어), 박수애(수아헤어라인), 이순옥(이미정미용실), 이정윤(정윤헤어),  
임정애(립스헤어), 표혜영(엘트레헤어)

### • 종교활동 지원

광휘교회 이천우 목사님, 수안보장로교회 최인철 목사님, 송덕교회 길용철 목사님, 양의문교회 류성열 목사님

### • 치과진료봉사

이치과의원

### • 봉사 단체

나눔 사랑회, (주)나루, 들꽃 봉사회, 케어메디칼, 탄금 봉사회, 햇살 봉사회

### • 중학생, 고등학생

강서연, 강채연, 공윤지, 권영웅, 김가영, 김나경, 김나은, 김다솜, 김동희, 김민서, 김은비, 김정민, 김주연,  
김태훈, 김혜원, 김호정, 민예원, 박인영, 박민지, 박서현, 박수민, 박준배, 박현설, 박효준, 반기영, 배수하,  
손지희, 신승민, 신주원, 신준혁, 안은영, 안재인, 안채림, 양시철, 양희원, 오재성, 우희원, 원다현, 원다해,  
원유민, 윤지인, 윤 혁, 이금민, 이미정, 이민서, 이소진, 장민영, 전하린, 전해솔, 정재학, 정찬미, 조성준,  
조유미, 조찬영, 지승후, 지유림, 진은민, 차현정, 최유나, 추미현, 한상원, 한지민

### • 일반인

심예은, 허현지, 오윤아, 신지민, 남동훈, 박태림, 박찬준, 박영서, 성하은, 서정호, 손지현, 이우연, 오정인,  
이소미, 윤지은, 문선영, 김세영, 임지영, 김수빈, 최혜림, 손혜언, 김혜원

## 운영위원회



박 대 응 예기종합건축사무소

조 수 정 나눔의집 이용인 부모 대표

조 영 숙 지역주민

김종진 나눔의집 이용인 대표

박 용 창 박통상회

이 강 훈 나눔의집 종사자 대표

이 용 우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명철 나눔의집 원장

임 병 준 (사)총주금

남선화 충주시 노인장애인과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 10/18 대원고등학교 커피동아리 후원금 전달



• 10/22 충주시의회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 11/11 충주여고 학생 후원금 전달



• 11/14 충주시 4H본부 후원물품 전달



• 11/2 나눔의집 부모회 후원금 전달



• 11/13 (사)미용사회 충주시지부 미용 봉사활동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 11/18 총주시 여성예비군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 11/19 보그워너총주(주) 후원물품 및 봉사활동



• 12/2 에이버리데니슨 골프동호회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 12/24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직원 후원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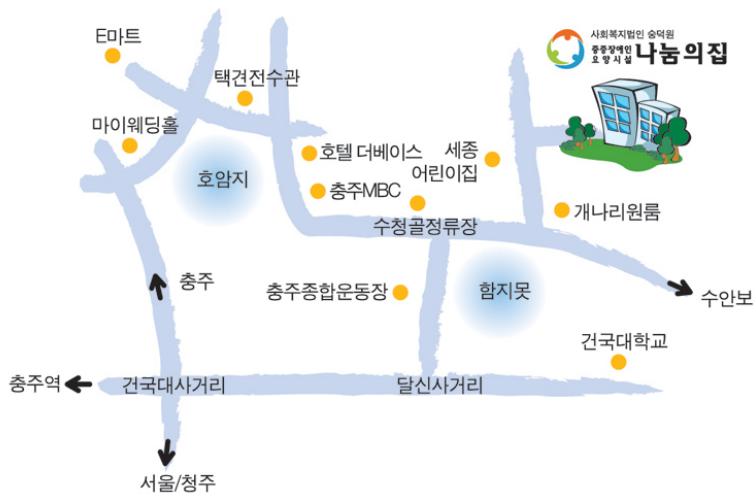


• 12/25 중앙자율방범대 후원물품 전달



• 12/27 주대홍레이콘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전달





### 찾아오시는 길

자 가 용: 충주IC → 충주방향 → 건국대 사거리(우회전) → 0.8km 직진 → 달신 사거리(좌회전) → 1.3km 직진 (우회전) → 150m 직진(개나리원룸 좌회전, 표지판 참조) → 300m 직진 후 우회전 언덕 끝자락

대중교통: 충주 터미널 → 수안보 방향 버스 승차 → 수청골입구에서 하차 → 150m 직진 (개나리 원룸 좌회전, 표지판 참조) → 300m 직진 후 우회전 언덕 끝자락

### 장애인보호작업장 월코



[www.ksdw.or.kr](http://www.ksdw.or.kr)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상담 : 충북 충주시 동광면 대전조돈길 301 T. 043) 851-1890 F. 043) 855-1892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종이컵 및 상점케이스가 필요하신분은 ZAN으로 연락주세요  
T 043) 856-4003



### 충주시 공식 1호 푸드 트럭



‘달신이상생’에서 차운 것의 맛을 느껴보세요.

<http://www.ksdw.or.kr/cjolim/>

운영: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충주어울림센터

메뉴: 커피 & 차 및 간식류

장소: 호암지 내 생태전시관 앞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금)

문의: 043) 856-0509

###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종종장애인 나눔의집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 Tel : 043) 843-9912 || Fax : 043) 843-9911

<http://www.cjnanum.or.kr/>